

고흥군 행정력 빛났다... ‘역대 최고 기록’ 연이어 달성

정부합동평가 전남 1위,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SA) 달성 ‘겹경사’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5년 정부 합동평가(2024년 실적)’와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전라남도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2025년 정부합동평가(2024년 실적)에서 고흥군이 역대 최초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정부합동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고흥군은 정량평가 부문에서 84개 중 82개 지표를 달성하며 전남 22개 시군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정성평가 부문은 16개 지표 중 15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이번 종합 1위 성과로 상사업비 1억 5천만 원과 포상금 2천5백만 원, 총 1억 7천5백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어, 지난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5년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도 공약이행평가가 시작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SA)을 획득했다.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2024년 말까지의 공약 이행지표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고흥군은 민선 8기 전제 100개 공약 중 65%를 이행하며 공약 이행 완료율이 전국 평균(53.05%)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2024년 목표 달성도 분야에서도 전국 평균(92.55%)보다 높은 99%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합동평가와 공약이행평가



에서 연이어 최고성과를 거둔 것은 평소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 적극 행정을 강조해 온 공영민 군수의 리더십과 민선 8기 동안 산업·경제, 복지, 농수산업, 환경, 안전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갈고닦은 행정역량이 제대로 발휘된 결과로 분석된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1,400여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값진

성과”라며, “대외적으로 입증된 고흥군의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을 발판 삼아 남은 임기 동안 군민 행복과 고흥의 변화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탄탄하고 수준 높은 행정력을 기반으로 군정과 군민이 서로 소통하며 ‘고흥 인구 10만 달성’의 비전 실현을 앞당기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완도군, 봄철 ‘산불 발생 제로화’ 달성

예방 활동과 촘촘한 현장 감시 체계, 군민 협조 등 도움

완도군에서는 지난해 가을철부터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산불 제로화’를 달성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 선제 대응, 촘촘한 현장 감시 체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낸 성과다.

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다.

또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산불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 발생 시 조동 진화 체계를 갖췄으며, 헬기를 운영해 공중 산불 감시 활동도 전개했다.

각 읍면에서는 주기적으로 마을 및 차량 방송을 통해 산불 조심에 대해

안내했으며, 입산 통제 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마을 대상 교육 등도 진행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큰 도움이 됐다.

군은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도 ‘산불 제로화’를 목표로 산불 취약 지역 중심의 사전 정비와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한 해였음에도 우리 군에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던 건은 군민들의 협조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전임유공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 전입시키면 지원하던 제도를, 3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전입에 유공인 있는 군민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

제도 확장에 따라 단체·기업·기관에서 3인 이상 전입 실적을 올릴 경우, 영암군은 30~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인은 3명 이상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영암군, 3인 이상 전입시키면 유공장려금 지급

기관·단체·기업 지원 조건 5인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

경우, 1명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개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 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암군은 전임유공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인구유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부가 다른 지역에서

영암군으로 전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부 전입지원금’ 등도 올해부터 신설해 시행한다.

인구유입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정책팀(061-470-2080)에서 안내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정책팀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곡성군, 유관기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19일 곡성 세계장미축제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동학대 대응 기관인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관심 제고를 위한 팸플릿 전달,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응원 메시지 작성, 건강한 양육 스타레스 해소법 안내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식을 높여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리플릿과 홍보 물품 배부를 통해 아동학대의 의심 징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관광객은 “긍정적인 훈육 방법을 통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의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전남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가 확산되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곡성군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곡성군은 매월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연계회의체 회의를 열어 학대피해 아동 및 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흥군, 친환경 유기농산물 미국 2차 수출길 올라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 유기농산물 미국 수출 본격화

장흥군은 20일 용두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미국 수출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산물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미국 수출길 오른 ‘바라미쌀’은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회장 권영식) 작목반에서 생산했다.

수출 계약물량은 총 20톤으로 지난 1월 10톤에 이어 2차로 10톤을 수출하여 미국 LA지역 마트에 공급된다.

장흥군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4월 장흥군 농수산식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 참여하여 미국 바이어와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

기농산물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장흥군은 지역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생산자, 제조·가공업체, 수출업체에 대해 각 kg당 190원에서 3,900원까지 품목별 차등단가를 적용하여 수출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수출경쟁력이 높은 유기농산물 등을 수출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살고 있는 것일지도... 새감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룩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해탈 같은... 잘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내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원한 사람을 만나도 기쁘게 할 것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한 할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한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저서
기억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알아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속... 웃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새감치럼... 핸드서... 기억할 것.
몇 장이나 될까... 잠시... 리우고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만 것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화
그 자체만으로도... 나
좋은 거라면... 나
은 언제나 우연치... 나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